

제5장

지명으로 풀어 본 대왕마을

1. 대왕마을의 세거 성씨

대왕면 지역에는 많은 성씨들이 대대로 살아오고 있다. 그 속 에는 상당한 학식과 명망을 지닌 당대 최고의 명성을 드날린 명인 현사(文人 賢士)들이 많은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집성촌으로는 고등동의 덕수(德水) 이씨(李氏)문중이나, 금토동의 안동(安東) 권씨(權氏)문중과 남원(南原)윤씨(尹氏)문중, 그리고 오야동의 청주(淸州)한씨(韓氏)문중과 신촌동의 광주(廣州)이씨(李氏)문중이나 심곡동의 순흥(順興)안씨(安氏)문중과 사송동의 원주(原州)원(元)씨 문중이나 시흥동의 경주(慶州)최씨(崔氏)문중, 그리고 금토동의 삭령(朔寧)최씨(崔氏)문중은 수백 년을 한결같이 선묘(先墓)를 지키며 살아온 명가의 전통을 이어온 명 문중이라 할 것 이다.

그 외에도 금토동의 남공철(南公轍)은 당대 최고의 대학자이며 최고의 정치가 였으니 그의 행상기(行狀記)전체가 역사로 불릴 만큼 위대한 족적을 남겼으며 정일당(正一堂) 강씨(姜氏)는 파평(坡坪)윤씨네로 시집을 와서도 주옥(珠玉)같은 시문을 남겨 여류시인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다. 이렇게 많은 문인 현사들이 이 지역에 잠들어 있어서 그분들의 가르침이 소리 내어 도도히 흐르는 이지역의 정서를 가히 짐작하게 하는 것이므로 마을마다에 모셔져 있는 명인현사들의 자취를 찾아 따라가 보기로 한다.

1) 신촌동

● 전주최씨

최기남(崔基男, 1551-1619): 1585년에 사마시에 합격하였다.

1609년 알성문과 병과(丙科)에 급제하고 영흥대도호부사를 지냈다.

아들 최명길의 귀함으로 인하여 증영의정을 제수 받았다. 묘는 신촌동 산 3-1번지에 있다.

● **청주한씨**

한 옥(韓勗,1512-1622): 통정대부, 호조참의. 승정원 부정자. 묘 신촌동 산 14번지.

● **광주이(李)씨**

14-5대를 살아오고 있다. 특기할 만한 인물은 없다.

그 외에도 평산(平山) 신(申)씨와 평택(平澤) 임(林)씨, 남양(南陽) 홍(洪)씨 등이 살고 있다.

2) 오야동

● **청주한씨**

한귀영(韓貴榮?-?) 어모장군. 묘 산12-3번지.

한귀익(韓貴益1544-1627) 통훈대부, 절충장군. 용양위 부사과. 묘 오야동 산12-3번지.

한진선(韓振善1587-1614) 통정대부, 호조참판 겸 지의금부사. 묘 오야동 산12-3번지

한세주(韓世胄1614-1681) 금위부 수어사. 묘 상동.

한득해(韓得海1684-1744) 통정대부, 호조참판. 묘 상동.

한완묵(韓完默1722-1802) 가선대부, 사헌부 지평. 묘 상동.

한대호(韓大浩1801-1864) 가선대부, 호조참판. 묘 상동.

● **경주이씨**

이 경(李慶),호조참의.

- 전주이씨

이언선(李彦瑄 1598-?).

3) 심곡동

- 순흥안씨

안담(安燾) 어모장군(禦侮將軍) 충좌위(忠佐衛) 부호군(副護軍) 안명세(安明世)의 父. 묘 산39-2번지.

안명세(安名世 1518-1548) 1544년에 별시문과 병과로 급제. 1545년에 가주서를 지내고, 1546년에 예문관검열과 춘추관 기사관을 거쳐 1547년에 승정원주서를 지냈으나 1548년에 참형당하였다. 후일 신원(伸冤)되어 증흥문관 직제학을 제수받았다.

묘 심곡동 산67번지.

안백지(安百之) 생물미상 縣監 안명세(安明世)의 子. 묘 산39-2

안처중(安處重) 생물미상 안명세(安明世)의 孫. 묘 산39-2번지.

안 목(安陸) 생물미상 안명세(安明世)의 曾孫. 묘 산39-2번지.

안홍봉(1624-1664) 안명세(安明世)의 高孫. 묘 산39-2번지.

- 성주이씨

이창우(李昌遇 1709-1772)

그 외 경주이씨, 교하(交河) 노(盧)씨, 진주(晉州) 강(姜)씨, 광주(廣州)이(李)씨 등이 살고 있다.

4) 고등동

• 덕수이씨

이 함(李菡 1470-1534) 20세에 무재(武才)로 뽑혀 궁궐수직하는 장교가 되었다. 1491년에도원수의 휘하로 종군하며 공을 세워 수의부위 정략장군이 되고, 1505년에는 건공장군이 되었으며, 중종반정으로 두계급 특진하여 절충장군이 되었다. 1507년에는 가선계에 오르고, 다음 해에는 가선대부 삭주부사겸 병마첨절제사 해풍군에 봉해졌다. 1529년 성절사로 명나라에 다녀왔고, 해풍군 봉조하에 임명되었다. 1532년 순천부사 재직시에 병사하였다.

묘 고등동 산13번지.

이인상(李麟祥 1511-1560) 해풍군 함의 아들. 군호는 덕안군. 묘 고등동 산13번지.

이통(李通 1556-1620) 1591년에 생원시에 합격하고, 여러 관직을 거쳐 평북 순천군수를 지냈으나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묘 고등동 산 37-1번지

이경안(李景顔 1572-1614) 1591년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1605년에 별시문과 병과에 급제하고, 1608년에 중시 병과에 급제하여 사간원 정언, 황해병사를 지냈다. 증 도승지를 제수 받았다. 묘 고등동 산37-1번지.

• 경주정씨

정행금(1869-1934)

이경민(李景閔 1578-1652) 1613년에 진사시에 합격 하였고, 여러 벼슬을 거쳐 배천(白川)군수를 지냈으나 좌의정으로 추증되었다. 묘 고등동 37-1.

이 혜(李稹 1635-1679) 1654년 진사시에 장원하고, 1660년 증광문과 을과로 급제하여 1601년 봉교를 거쳐 1602년에 정언이 되었고, 1665년에 홍문록에 올랐으며, 1668년에 이조좌랑이 되었으나 해운판관 조가석의 비리탐학을 비호한 혐의로 파직되었다. 1670년 부응교 사간을 거쳐 1671년 삼남 암행어사가 되었다. 그 뒤 동부승지와 우승지 예조참의를 지내고 대사간이 되었다. 묘 고등동 산6번지.

이희상(李喜相1626-1692) 1654년에 진사시에 합격하여 홍산현감을 지냈다. 증 이조참판. 묘 고등동 산6번지.

이희유(李喜濡1651-1669) 통덕랑. 혜(穉)의 자 묘 고등동 산6번지.

이의번(李宜蕃1443-?) 돈녕부 참봉이었으나 순충보작공신 호조판서에 추증되었음. 묘 고등동 산6-1번지.

이 우(李隅 1696-1767) 1723년에 생원시에 합격. 1751년에 국제(菊製)시 장원급제 한 후 1752년에 정시(庭試)에 급제하고, 병조참판을 지냈다.

묘 고등동 산 28-2번지

이 심(李芯) 하원군

5) 둔전동

비행장에 편입되어 묘역이 없음.

6) 상적동

● 덕수이씨

이경헌(李景憲1585-1651) 1609년에 진사시에 합격 후 1610년에 증광문과 병과에 급제하여 승문원에 발탁되었다. 1623년에 필선을 거쳐 좌부승지 때에 정사원종공신으로 공주목사를 지냈고, 1627년 정묘호란 후에 병조참의와 동부승지를 역임하였고, 630년에는 접반사를 지내고 형조참의와 승지를 거쳐 호조참의를 지냈다. 1636년 병자호란이후에 병조참판 겸 동지의금부사를 거쳐 개성유수가 되었다. 1639년에 서추 겸 동지의금부사를 동년 사은부사로 심양에 가서 세자대신 원손을 불모로 세자를 귀국하게 하였으나 남양으로 유배되었다가 세손이 귀국하자 곧바

로 풀려났다. 예조참판과 공조참판을 거쳐 경기관찰사와 강화유수, 공조참판과 예조참판을 거쳐 동지돈녕부사와 도승지 겸 사용원 제조를 지냈다. 증이조판서 홍문관 예문관 대제학으로 추증되었다. 묘 상적동 산 24-1번지.

이경용(李景容1581-1635) 1609년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1618년에 문과에 급제한 후에 여러 벼슬을 거쳐 전라도 관찰사를 지냈다. 묘 상적동 산24-1.

● 경주김씨

김복경(金復慶1694-1774) 이후 살아오고 있다.

● 홍천용씨

용호강(龍虎疆) 장례원정의 후손들이 살고 있다.

7) 금토동

● 안동권씨

권반(權攀?-1470) 1455년 수충경절좌익공신 2등에 녹훈되어 전농소윤을 제수받고 1456년 예빈시윤을 거쳐 1459년에 첨지중추원사시에 문과 정과에 급제하였다. 행첨지중추원사를 지내고 예문관 직제학 화산군(花山君)을 제수 받았으며, 공조참판으로 정조사의 부사로 명나라에 다녀왔고, 1460년에는 한성부윤과 사헌부대사헌을 거쳐 중추원부사와 황해도 관찰사를 지냈다. 1461년에는 형조 참판과 형조참판을 지내고 1462년에는 한성부윤과 검사복장을 1463년에는 강원관찰사와 충청관찰사를 거쳐 1465년에는 경상도 군적사, 1467년부터는 경기도 절도사 겸 개성유수를 지내고, 1472년에 졸하였으며, 시호는 안양(安讓)이다. 자신이 지은 무진정(無盡亭)이라는 정자(亭子)가 있었고, 재실의 이름은 영

모재(永慕齋)인데 후손들에 의하여 충북 음성에 있는 할아버지인 양촌(陽村) 권근(權近)의 묘역 부근으로 이축되었다. 묘는 경기도 장단에 있다.

권징(權徵?-1467년) 권반의 아들로 1455년 행정자(行正字)로 세조의 호성원중공신 2등에 녹권이 되었고, 1459년에 도관 좌랑이 되었다가 1463년에는 사헌부 지평을 지냈다. 1467년에 함길도 평사를 지내다가 이시애(李施愛)난 때에 반군에게 참살되었다. 그 공으로 금토동 일대를 사패지로 받았다

권괄(權括?-?) 음보로 충훈부 도사를 지내고 증좌승지로 추증되었음. 세조에게 사패지 받음. 묘 금토동 산57-4번지.

권징(權徵1538-1598) 1562년 별시문과 병과에 급제하여 검열이 되었으며, 1567년에 주서가 되고 1568년에 병조좌랑 겸 춘추관 기사관이 되어 명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였다. 동부승지와 도승지 형조참의를 거쳐 전주 부윤과 안변부사와 강원도 관찰사를 지내고, 1586년에 형조참판과 충청, 함경도 관찰사를 거쳐 병조판서와 평안도 관찰사 공조판서를 지내고, 진휼사(賑恤使)를 역임 하였다. 선릉과 정릉의 산릉도감 제조를 지냈다. 증의정부 영의정을 제수 받았다. 시호는 충정(忠定)이다. 묘 금토동 산63번지

권 우(權愚?-?) 원주목사를 지냈으며, 증직으로 대사헌을 제수받았다. 묘 금토동 산 57-4번지.

권 굉(權磁?-1568) 증좌위 부사과를 지냈으나 화성군에 봉하였으며 증영의정을 제수 받았다. 묘 금토동 산57-1번지.

권 잉(權仍?-?) 사옹원 판관이었으나 증승지를 제수받았다. 묘 산 57-2번지.

• 의령남씨

남공철(1760-1840) ※ 참고 사항 생략

• 남원윤씨

윤극신(尹克新1527-1587) 1576년에 별시문과에 급제 하였으며, 이 조좌랑과 홍문관 교리를 거쳐 임천군수를 지냈다. 증승정대부 의정부 좌찬성 겸 세자이사를 제수받았다. 묘 금토동 산44번지.

윤 엽(尹曄1549-1604) 홍문관교리 서천군수, 증 도승지. 묘 금토동 산44번지.

윤 돈(尹墩1551-1612) 1585년 식년문과에 급제하고 이조정랑을 지내고 병조참판을 거쳐 공조판서에 올랐다. 충청관찰사와 동지중추부사를 지내고 예조판서에 올랐다. 시호는 효정이다. 묘 금토동 사44번지.

윤재옥(尹在燾1876-1972) 의병장으로 광주일대에서 크게 활약한 애국지사이다. 대한민국 건국훈장 건국장을 수여 받았다. 묘 금토동 산44번지.

● 파평윤씨

윤광연(尹光演) 정일당 강씨의 남편

● 삭령최씨

최 웅(崔顛 1528-1582) 1546년에 초시에 합격하고 1555년 식년문과병과에 급제하여 여러 벼슬을 거쳐 예조참판을 역임하였다. 묘 금토동 산22-1.

최상찬(崔尙燦 ?-?) 최 웅의 아들. 묘 금토동 산22-1번지.

최상립(崔尙立 ?-?) 학생부군, 최 웅의 아들. 묘 산22-1.

진주 강씨 등이 살고 있다.

8) 시흥동

● 경주최씨

최덕지(1628-1684)

최홍량(1808-1862) 고금도 수군절제사와 어모장군 전라우도 수군절제사를 지냈다.

9) 사송동

● 원주원씨

원경하(元景夏1698-1761) 1736년 부술 이란 벼슬 때에 정시 장원 급제하여 문학과 정언 등을 거쳐 호남별건 어사와 강화시재 어사 등을 위임하고, 교리와 승지를 역임, 1741년에 형조참관, 1742년에 이조참관을 지낸 뒤 1744년에 도승지와 참찬관을 거쳐 1745년에 공조판서를 시작으로 1746년에 병조판서, 1747년에 다시 공조판서, 1749년에는 형조판서와 이조판서를 지내고 1750년에는 또다시 형조판서와 좌참찬을 거쳐 승정대부 판의관 검사를 지냈다. 1751년에는 판 돈녕부사 겸 세손부를 거쳐 다시 공조판서를 지내고, 1753년에는 예조판서와 지경연사와 판 돈녕부사와 1755년에는 내의원제조를 1756년에는 지중추부사를 지내고, 1757년에 봉조하가 되었다. 증영의정을 제수받았으며, 창하집 등 10여개의 문집이 전하여 오고 있다. 묘 사송동 산16-1번지.

원의손(元義孫1725-1781) 1757년에 사마시에 합격하여 의금부도사와 문학으로 시작하여 1763년에는 장령, 부교리, 교리를 거쳐 집의 사간 응교를 지냈다. 1765년에 승지가 되고 1772년에 우윤을 거쳐 사헌부대사헌에 오르고, 1773년에는 전라도 관찰사를 지냈으며, 오위도총부부총관과, 승문원 제조를 겸하였다. 묘 사송동 산15-2번지

● 양성이씨

이양정(李養正?-?) 상호군, 묘 사송동 산75-2번지

이윤중(李潤終1490-1551) 사과진 수군첨제사. 묘 사송동 산75-2번지

이진수(1762-1796) 승정원 우승지, 증 병조참관. 묘 사송동 산 66-1번지

이사치(李思恥?-?) 판 사재감 사
이 몽(李蒙?-?) 진도군수
이 운(李芸?-?) 선략장군. 묘 사송동 산75-2번지
이 영(李瑩 ?-?) 병조참의

● 의령남씨

남연명(南延鳴1706-1774) 여주목사

● 단양우씨

유학(幼學) 우복영(禹福榮)이 처음으로 이거(移去)하여 5대째 살고 있다.

● 여흥민씨

유학(幼學) 민치중(閔致宗1790년생)이 대왕면 시흥리 요골(料谷)에서 이거(移去)하여 5대 째 살고 있다.

이 외에 평택(平澤) 임(林)씨와 전주(全州) 이(李)씨 그리고, 진천(鎭川) 송씨와 남양(南陽)방(方)씨, 파주(坡州)염(廉)씨 등이 살고 있다.

2. 대왕 마을의 지명

대왕면이라는 지명은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그 어원을 알 수 있다. 백제 시조 온조왕이 하북위례성에 개국하여 국기를 다진 다음, 하남 위례성으로 이도(移都)하여 493년 간 유지하여 왔으나 서기474년에 고구려 장수왕의 침공으로 개로왕이 전사하자 백제는 하남 위례성을 버리고 패주하여 공주를 수도(首都)로 삼고, 문주왕(文周王)이 즉위(即位)하니 한수유역은 이때부터 76년간을 고구려에게 빼앗긴 백제의 영토로 있다가 서기551년에 성왕(聖王)이 신라와 나제 연합군(羅濟聯合軍)을 결성하여 고토를 회복하였다. 그러나 2년 뒤인 서기 553년에 신라 진흥왕(眞興王)에게 이곳의 땅을 빼앗김으로써 고려의 개국때까지 신라의 영토가 되었다.

삼국(三國)이 다투어 차지하였던 땅이고, 삼국의 왕(王)들이 이 지역을 점령(占領)하고 자국(自國)의 위세(威勢)와 위용(威容)을 과시(誇示)하였던 땅이다. 삼국의 임금들이 다투어 밟은 땅이라서 대왕평(大王平)이라고 불렀다.

조선시대에 태종대왕의 헌능(獻陵), 인릉(仁陵)과 영릉(英陵, 후일 여주로 이장 되었음)이 생기면서 대왕(大王)의 정기로 왕실이 창성하기를 염원하는 뜻에서 창성할 왕(旺)자로 바꾸어 대왕(大旺)으로 부르기 시작하였다고 전한다.

태종대왕이 수능(壽陵)자리를 찾아보러 나왔다가 대왕평(大王平)에서 머물렀다는 구전(口傳)이 있고, 세종실록(世宗實錄) 7년 10월1일에 문현산에서 사냥하고 낮참에 산 아래 들에서 머물렀다가 저녁에 대왕평(大王平)에서 머물렀다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지금의 몽촌토성 일대에서 방이동과 송파동으로 이어지는 야트막한 능선일대를 ‘대왕재’라고 불린 기록이 광주군지(廣州郡誌)에 있다.

이로써 지금의 성남시의 일부인 옛 대왕면 일대와 송파일대, 그리고 강남지역 일부의 별관지역을 통털어 대왕평(大王平)이라고 불렸음을 알

수 있다.

동별 지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신촌동

조선시대부터 광주군 대왕면 신촌리로 불려오다 1973년 성남시로 승격되면서 신촌동으로 불려진 마을이다. 광주 이씨는 14,15대를 살았고 전주 최씨도 수백년간 살아 왔다고 전하나 어느 집안에서도 정확한 지명의 기록이 없다.

새말이라는 이름은 마을이 새로 생겼다고 붙여진 이름이나 관련 기록은 없다. 이 지역의 지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담박골 말무덤

- 선챙이: 솥내를 따라서 배가 오르내렸는데 배를 정박시키던 곳
- 선챙이 들: 선챙이 주변일대의 논과 밭이 있던 들판
- 큰 솥내: 오야동과 신촌동 앞을 흐르던 넓은 솥내
- 잣내 들: 작은 시내가 흐르던 잔내께 일대의 들판의 통칭
- 잣내께: 세곡동 쪽에서 흘러내려오던 작은 시내들의 통칭
- 중반들: 지금은 비행장안에 25번지일대의 들
- 가문앞들: 비행장내에 오야동과 경계지점인 32번지 일대의 들
- 잔들: 신촌동 168번지 일대의 작은 들
- 두집메집: 옛날에 두 집이 살던 터라서 부쳐진 110번지 일대
- 담박골: 두집메 담밖에 있는 골짜기라고 붙여진 이름
- 말무덤: 언제인 지는 몰라도 말 무덤이 있었다는 산6-1의 산 아래에 있던 터
- 방앗간 터: 신촌리에는 방앗간이 세 곳에 있었는데, 75번지 일대의 방앗간 터
- 작은 새말: 203번지에서 205번지 일대의 작은 마을의 통칭
- 옷우물: 산6-1번지 광주이씨 종중 묘역 하단에 있던 차고 맑은 우물
- 광주이씨 종중묘역: 산6-1일대의 광주 이씨 종중의 묘가 있는 산 일대
- 큰 새말: 190번지에서 230번지 내에 신촌동에서 가장 큰 마을의 이름
- 평산신씨 묘역: 산227번지 일대의 평산 신씨 묘소가 있는 종중산 일대
- 뒷말: 신촌동 맨위에 있는 230번지에서 235번지 일대의 마을
- 청주한씨 묘역: 산14번지 일대의 청주 한씨 선대묘가 있는 묘역
- 남양홍씨 묘역: 산10번지 일대의 남양 홍씨 선대묘가 있는 묘역
- 새말 고개: 남양홍씨 묘역 위에서 오야동으로 넘어가는 고개
- 범바위께: 산12번지일대에서 오야동 산11번지에 범바위 일대의 통칭

2) 오야동

조선시대에는 광주군 대왕면 오야리였는데 1973년 오야동이 되었다.

옛날에 기와를 구웠다고 하여 와실(瓦室)이라고도 하였고, 오동나무가 많은 곳이라서 오야소(梧野所)라고도 하였으며, 오동나무 열매가 많아서 오야실(梧野實)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으나 오야리(梧野里)로 변하였다가 오야동이 되었다. 수정구 신촌동의 관할이 되었다.

한편, 낙생면과 돌마면 사이를 흐르는 숲내는 백제시조 온조왕이 하북 위례성에서 BC.6년에 하남위례성으로 이도(移都)한 후에 군사들을 훈련 시키느라 밥을 하여 먹이고, 우마(牛馬)의 죽을 쑤어 먹이느라 땀 나무 장작에서 나오는 숲이 내를 이루었다고 하여서 ‘숲내’ 라고 이름이 부쳐진 곳이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에 의하면 약11-12만 여명의 군사들과 수많은 우마(牛馬)의 죽을 쑤어 먹이느라고 천오백여 마차 분의 장작을 때었다고 한다.

- 뒷피산: 오야동 산11-15번지 일대의 마을 뒷산
- 범바위산: 산11번지에 있는 범바위 일대의 산 이름
- 죽마위산: 장곡 뒷산100m 정도의 큰 바위 이름. 나무가 우거져 바위를 가리우면 풍년이 들고, 숲이 없어서 바위 모습이 드러나면 흉년이 들어 죽을 먹게 된다고 해서 붙은 이름
- 깊은골 고개: 오야동 산16-1번지 윗고개로 심곡동을 오고가던 고개
- 아랫고개: 오야동의 중간지점에 있는 고개로 심곡동으로 오고가던 고개
- 요골고개: 오야동 산19번지 아랫고개로 오야동에서 당아래 황새머리들과 마루들을 왕래하던 고개
- 새말고개: 235번지 일대로 해서 신촌동으로 왕래하던 고개.
- 장골말: 오야동에서 제일 서쪽에 있는 마을로, 골짜기가 길고 깊은 곳에 있는 294번지 일대의 마을이다.
- 장골 오야동공소: 공식 명칭은 천주교 수원교구 태평동 성당 오야동 공소이다. 가선대부 호조참판 한대호(韓大浩,1801년-1864년)의 정부인 김해 김씨(1804-1862년)가 시가의 어른들과 조카들을 설득하여 천주학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 오야동 284-3번지에 지은 성

당이라고 한다. 약170여 년간 미사를 보았다. 후에 한봉주, 한연흠, 한태문 등 세 명의 신부를 배출한 명문으로 자리 잡았다.



태평동 성당 (오야동 공소)

- 장골고개: 오야동 장골294-1번지에서 심곡동 산65-1 끝 지점으로 깊은 골로 넘어 다니던 고개
- 가루같이들: 심곡동과 경계지점인 왜실 동남간에 130번지 일대 들판
- 가문앞들: 왜실 동쪽에 있는 12번지-16번지 일대의 전답들을 통칭하는데 밭이 많다
- 물썩논개: 오야동 동쪽에 논들을 일컫는데, 옛날에 물썩이 많이 있어서 붙은 이름
- 범바위: 뒷괴산 정상인 산11번지내에 신촌동과 경계선에 있는 바위. 옛날에는 범이 자주 나타났다고 한다.
- 장사바위: 오야동 산15-1에 심곡동 사이에 있는 바위. 옛날 장사가 바위를 들다가 힘이 부쳐서 다시 내려 놓고 화가 나서 주먹으로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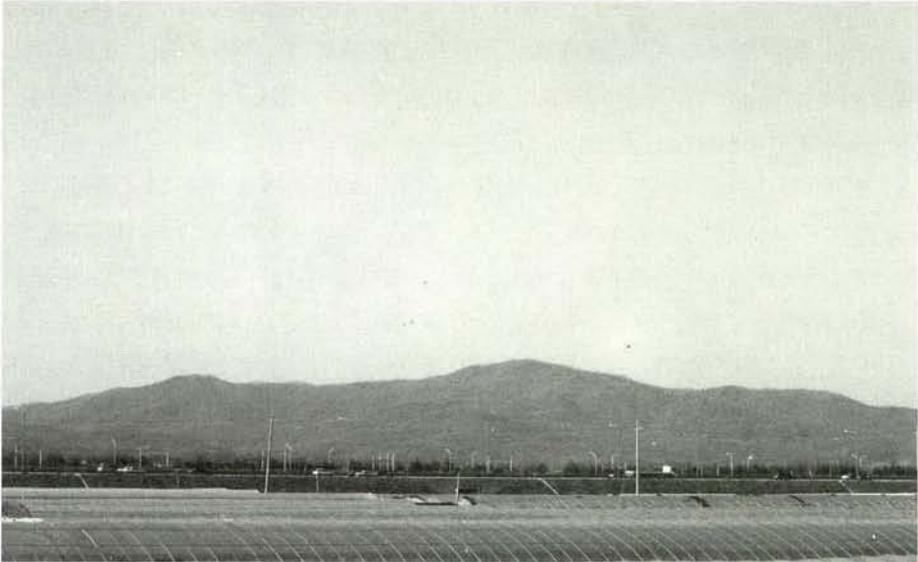
러치니 주먹자리와 손가락 자리가 생겼다고 한다.

- 황새머리들: 효성중고등학교앞 136-1번지 일대의 들판. 비행장으로 편입되었다.
- 왜실: 오동나무가 많아서 부쳐진 230번지에서 250번지 일대의 마을
- 아랫말: 276번지에서 290번지 일대의 오야동 중간에 있는 마을
- 새명당: 새로운 명당이라는 용어인데 일제 때에는 신사참배를 강요당하였던 곳이다.
- 숲내: 지금의 탄천. 정자동에서 한강까지의 긴 하천이다. 백제 시조인 온조대왕이 하북위례성에서 하남위례성으로 이도(移都)한 후에 군사들을 탄천변 벌판에서 훈련시킬 때에 군사에게 먹일 밥과 국을 끓이고, 우마(牛馬)에 먹일 죽을 끓일 때에 수백 마차 분의 많은 장작을 때고, 숲은 그대로 개천가에 버렸으므로 숲이 내를 이루었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물이 맑기로 유명하였던 곳이다.
- 작은 숲내: 붓도랑이 연결되어 흐르는 물이 많지 않았던 작은 시내.
- 구부렁 논길: 구부러진 논뚝을 따라 이어진 84번지 일대의 논뚝길.
- 까치머리들: 까치들이 많이 살았던 숲내가의 24번지 일대의 들.
- 버들실: 오야동126-130번지 일대와 심곡동79번지, 94번지와 256-1번지 중간 개천에 버들가지 나무가 많아서 부쳐진 이름.
- 당아래들: 새명당 아래에 있는 들이라는 뜻으로 130번지에서 154번지와 155일대에서 심곡동과 연결된 지점이다.
- 왜실고개: 심곡동 산17번지로 넘어 다니던 고개

3) 심곡동

조선시대에는 광주군 대왕면 심곡리였다가 1973년 심곡동으로 변경되었다. 인능산 밑에 깊은 골짜기에 생겨난 마을이라서 깊은 골로 불리다가 심곡(深谷)으로 표기되어 심곡동(深谷洞)이 되었다. 수정구 신촌동의 관할이 되었다.

- 당피산: 심곡동 산42번지-산50번지 사이에 작은 산인데 옛날에 도당굿을 하며 제사를 지내던 당집이 있던 곳



인능산 전경

- 인능산: 심곡동 산65-1-65-48번지 일대의 뒷산이며, 안골의 뒷산으로 현능과 인능을 쓰고 부터 인능산으로 불리웠다고 전하여 온다.
- 반등산: 426-428번지 일대로 공군 군인아파트와 심곡저수지 사이에 있는 작은 산.
- 봉화뚝산: 심곡동의 서북쪽의 산. 산65-48과 산67-47번지 최정상으로 옛날에 산마루턱에 봉화뚝이 있어서 행정소재지인 남한산성과 봉화로 연락을 하였다는 산
- 쪽박산: 심곡저수지 옆 등자골 사이에 있는 산82-1번지와 고등동 산1-1번지 일대의 쪽박을 엮어 놓은 모양과 같다고 하여서 붙은 이름
- 산골고개: 웃마을 서남간에 있는 고개. 심곡동에서 뒷골로 가는 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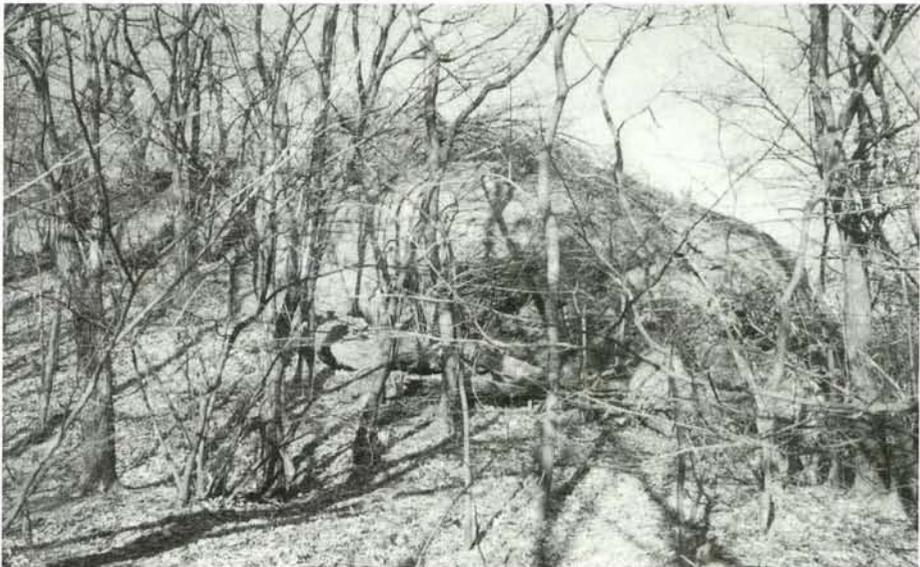
31번지와 산32번지 일대에 있다.

- 서울고개: 마을 서북간에 있는 산65-1번지 내에 있는 고개이다. 옛날에 서울을 갈 때 넘어 다니던 고개로 내곡동과 연결된다.
- 움매고개: 마을 남쪽에 등자리를 가기 위하여 넘어 나들던 산39-1번지-산39-2번지 일대의 고개이다.
- 장골고개: 심곡동 산65-1번지 에서 오야동 장골로 넘어나들던 고개.
- 깊은 골: 심곡동 서북쪽에 위치하여 있는 인능산인 산65-1에서 동남쪽으로 흐르는 골짜기와 마을의 통칭이다.
- 뒷골: 심곡동 서남간에 있는 산67-47하단의 작은 산으로 둘러싸인 골짜기 마을이다.
- 안골: 심곡저수지 위에 있는 466번지-482번지 일대에 골짜기, 옛날 고등리 장으로 가는 길목이어서 일명, 장골이라고도 한다.
- 약수터: 심곡동 북서쪽 382-1번지에 있는 샘터바위에서 솟아 나오는 샘물이 있다.



멍석 바위

- 심곡저수지: 1943년 일제치하때에 설치한 저수지로 공군 군인 아파트와 쪽박산 사이에 있는 478번지 일대의 저수지이다.
- 가래들: 심곡동과 등자리 경계지점인 144-1-186-1일대의 논들인데 비행장에 편입되었다.
- 거북바위: 효성고등학교 후문 밖에 있는 바위.
- 효성고등학교: 대왕면 일대에 있는 유일한 고등교육기관이다.
- 도당터: 마을 서쪽 끝 지점인 344번지 일대에 있으며, 옛날 도당굿을 하며 마을의 안녕과 복을 비는 제사를 지내던 곳인데, 현재는 공동 수도물탱크 위에서 음력 7월1일 우물고사를 지낸다.
- 둔 땅: 뜬땅 이라고도 하였는데 산55-1번지로 현관사 자리이다.
- 마루들: 심곡동 동쪽에 있던 204번지에서 256-1번지 일대의 들녘으로 비행장에 편입되었다.
- 명석바위: 명석 5-6장을 갈아놓은 것 같은 넓은 바위 남쪽 산 67-47번지와 산79-1번지 위 산등성이에 있는데 응달말 뒷산이다.



비행기 바위

- 버들섬: 심곡동 동남쪽 오야동과 경계지점인 184에서 256번지이 일대에 있는 들판인데 비행장에 편입되었다.
- 비행기 바위: 산67-47번지와 산79-1번지에 있는 명석바위 와 붙어 있는 바위인데 비행기 모양을 하고 있다.
- 살구 논들: 256번지 일대로 살구나무가 있던 들인데 일본인 후리가 살았던 곳이라고 한다.
- 안터: 안골(장별)에 있는 487번지의 집터인데 안홍봉이라는 사람이 살던 집터.
- 학두들기들: 학들이 날아와 노닐던 94번지 일대의 들녘인데 비행장에 편입되었다.
- 당피뿌리: 당피산 아래에 모퉁이 길 일대를 당피뿌리라고 한다.
- 장승백이: 357-1번지 일대인데 효성고등학교 앞에서 깊은 골로 오는 길목에 장승이 세워져 있어서 붙은 이름이다.
- 질마바위: 산65-1내에 있는 바위로 소잔등에 짐을 실을 때 사용하던 질 마(길마)처럼 생겨서 붙은 이름이다.
- 세시내들: 둔전동과 경계지점인 8-1번지와 94번지 남쪽에서 둔전동 2-1번지와 25-1번지에 걸쳐있는 들판이다.
- 장살미: 70번지와 79번지, 8-1번지 북단일대의 들판이다.
- 왜실고개: 산17번지에서 왜실로 넘어 다니던 고개
- 당아래: 310-314번지 일대로 당집 아래라는 뜻의 이름이다.

4) 고등동

조선시대에는 광주군 대왕면 고산리와 등자리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서 고등리가 되었다가 1973년 고등동이 되었다.

고등동은 옛날 대열(大閱)때에 사령탑이 세워져 신분 높은 장수와 고관대작들이 수없이 드나들었다는 고산리(高山里)에서 고(高)자와 덕수이씨 문중에서 통과하는 경사가 잇따라 생겨난 이름이다.

혹은, 대열 당시에 군사들이 켜놓는 석등이 많아서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등자리에서 등(登)자를 합성시켜 고등리(高登里)라고 부르다가 고등동(高登洞)으로 개명되고, 현재는 수정구 고등동사무소 관할이다.

- 인능산: 산7-1번지 일대의산을 현능과 인능을 쓰고부터 인능산, 또는 능산이라고 한다.
- 도당재산: 산신제를 지내던 산신제당이 있던 산22-1일대 산인테 고산리와 등자리 경계지점에 있다.
- 탐산: 고산골에서 저푸리로 넘어가는 산38-2일대 고개에 탐이 있었다고 전하며 일대의 산을 탐산이라고 부르고 있다.
- 도당고개: 고산골에서 등자리로 넘어가던 산15번지에서 산22-1과 산23번지 일원의 도당재 산고개로 옛날 산신제당이 있던 고개이다.
- 개토골: 고산골의 서쪽에 있는 534번지 일대의 양지쪽 골짜기로 토끼가 많아서 개토골이라고 하였다 한다.
- 세자골: 537번지일대에서 개토골까지 연결된 골짜기인데 절에서 자주 시주를 받으러 내려온다 하여 시주골이었다가 음이 변하여 된 지명이라고 한다.
- 세자골고개: 고산골에서 금토동으로 넘어 가는 산41번지에서 산42번지 일대의 고개.
- 뒤골: 마을 뒤에 있어서 뒤골이다. 산37-1번지 일대로 덕수 이씨 종중산이다.
- 문배나무골: 등자리 오동골 바로 아래에 문배나무가 있던 산37-1번지 내의 골짜기.
- 도토목골: 뒤골 아래 덕수 이씨 종산을 지나서 남동향의 산37-1동남단의 골짜기.
- 오동골: 덕수 이씨 묘역을 지나 상적동으로 가는 길 위쪽에 있는 37-1번지내의 골짜기. 오동나무가 많았다고 전하여 온다.
- 음터골: 주막거리와 등자리 사이에 있는 251번지에서 290번지 일대의 골짜기.

- 주마터골: 등자리 남쪽에 위치한 300번지-309번지 일대의 골짜기.
- 피란골: 등자리 뒤골의 서남향의 산꼭대기까지의 산37-1일대 골짜기인데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이라 붙은 이름.
- 등자 저수지: 등자리 뒤 산6-1번지 맨 아래에 있으며 이장 이종숙과 주민들이 만든 동네 공동 저수지이다.
- 대동 우물: 등자리 162번지에 있던 우물인데 도로가 나면서 폐정되었다.
- 옛내(川): 청계산 고산골에서 발원하여 고등동과 시흥동의 경계를 이루는 하천이다.
- 옛내벌: 373-4일대에서 시흥동과 둔전동의 경계 지점의 들판.
- 가래들: 고등동 주막거리 동쪽인 고등동1번지와 둔전동61번지와 108번지 일대의 들판인데 비행장에 편입되었다.
- 도당터: 고산골과 등자리 사이에 산22-1번지의 산신제를 지내며 도당굿을 하던 터.
- 범바위: 등자리 뒷산인 37-1번지 내에 있던 범 모양의 큰 바위.
- 범바위: 새술막에 있는 범의 형상을 한 바위.
- 봉화뚝: 등자리 마을 뒷산인 산7-1번지 최정상에 있던 봉화불을 피워 남한산성과 연락하던 곳이다.
- 우물터: 등자리 경주 김씨네 선대묘 옆에 지관이 우물을 파두라고 하여서 우물을 파고 관리 하였는데, 자손이 거칠어 역적이 날까 두렵다고 폐정시켰다고 한다.
- 절터: 등자리 570번지인 탐산골에 절이 있었는데, 절에 중이 너무 많아서 매일같이 마을로 내려와서 시주를 달라니까 마을 사람들이 절을 헐어 버렸다고 한다.
- 토끼마당: 고산골 국민학교에서 마주 건너다 보이는 산23번지 일대.
- 하고방계: 6.25당시 피난민들로 형성된 마을로 다리건너 443-1일대
- 새술막: 397번지에서 420번지 일대 옛날 장터 주변에 새로 술막이 생겨서 붙은 이름

5) 둔전동

조선시대에는 둔전말 또는 둔전촌으로 불렸는데 1914년에 둔전리로 바뀌었고, 1973년에 둔전동으로 불렸으나, 비행장이 들어서면서 폐동이 되었다. 광해조의 실록에 정금원을 둔전하라는 왕명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 중기 이후인 광해군 이후에 둔전이 생긴 것으로 추측된다.

둔전동은 비록 작은 동리였으나 성당과 교회를 통해 서양 문물이 일찍 들어온 곳이다.

- 둔전말: 둔전말은 옛날에 둔전이 있고 둔전에서 거두어들인 곡식창고가 있어서 붙은 이름이다. 초대 부통령을 지낸 함태영 선생이 두 아들과 함께 둔전교회에서 수년을 거처한 적이 있다.
- 대왕보: 21-13번지에서 수진리와 연결된 보가 있어서 심곡동이나 오야동, 신촌동 그리고, 세곡동에서 숯내물을 농업용수로 이용할 수 있었던 수리시설이었다.
- 옛내벌: 고등동 심곡동과 경계지점인 129번지에서 191번지 일대의 벌판이다.
- 옛내: 고등동 시흥동과 경계로 흐르는 시내이다.
- 배매산: 사송동산1-1번지와 둔전동 산1-4번지 위에 작은 산. 장마 때에 이 산에다 배를 매어 두었다고 한다.
- 가래들: 61번지와 108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돌다리: 61번지 북쪽과 25-1번지 북쪽에 합수머리 일대
- 붓도랑 길: 대왕보에서 세곡동으로 길게 난 붓도랑을 따라서 이어진 농로

6) 상적동

조선시대에는 적동과 노상동으로 불려오던 마을인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상적리라고 하였다가 1973년에 상적동이 되었다.

상적동은 청계산으로 유람 나온 한량들이 흥에 겨워 피리를 불며 놀았다는 적취리(笛吹里)와 달래네 고개 길 윗마을이라는 노상동(路上洞)의 합성어로 노상동에서 상(上)자와 적취리에서 적(笛)자를 합쳐서 상적동(上笛洞)이라고 하였다가 수정구 고등동의 관할이 되었다.

- 까마귀산: 청계산 낙맥으로 옛날에 까마귀들이 모여 살았던 곳으로 상적동 삼거리 앞 산40번지 일대이다.
- 인육산: 상적동의 뒷산인 산11번지 일대의 통칭이다.
- 박석고개: 서울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211-1-214번지 일대 버스 정류장 사거리 일대 고개
- 월현: 옛날에 달맞이하던 고개인데, 달래네 고개라고도 한다. 달아와 달오 남매에 대한 설화가 있는 산48-2와 산49-4일대의 고개이다.
- 긴골: 옛골에서 청계산을 오르는 골짜기로 가다가 중간쯤에서 남쪽으로 뺀 산73-2번지내의 골짜기이다.
- 뒷골(陰谷(음곡)): 신구농원이 있는 132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사태골: 명성바위 골짜기 산73-2내에 있다.(군용지)
- 산수골: 저푸리에서 노상동으로 가는 중간192-207번지 일대로 흥천 용씨 종중산이 있는 곳이다.
- 큰골: 장수바위가 있는 412번지-441번지 까지의 긴 골짜기.
- 어등골: 옛골 서남간의 산76-1일대의 골짜기.
- 너머우물: 월현밑에 있는 247-1일대에 있던 우물, 용달샘물 물맛이 좋아서 삼남까지 소문이 나 있다고 한다.
- 대왕저수지: 1959년에 준공된 저푸리 앞에 있는 저수지이다.
- 넘말: 사거리에서 동북간에 평퍼짐한 골짜기. 옛날에는 마을이 있었다는 180-198번지일대를 통칭한다.
- 노루배: 산40번지인 까막산 아래 하천에 있는 넓은 바위로 여러 사람이 앉아서 놀기 좋은 곳이다.
- 도당터: 저푸리 뒤 마을에서 산신제를 지내던 산74-4번지 큰 고목

나무가 있었으나 고사 하였다.

- 망경대: 산73-2능선의 청계산 상봉에 있는 큰 바위. 조건선생이 이곳에서 고려의 서울인 개성을 바라보며, 고려를 지키지 못한 충절의 눈물로 세월을 한탄하며 움막을 지어 살았다.
- 석기봉: 망경대에 붙어있는 바위로 이루어진 봉우리인데 석기(石器)인지 석기(石基) 또는, 석기(石起)인 지는 분명하지 않다.
- 명성바위: 군용지 서쪽에 산73-2번지 내에 있는 큰 바위. 바위 밑에서 샘물이 솟아 오르는데 물이 좋아 정성을 들이고 소원을 빌던 곳.
- 목정승모이끼: 산74-1번지 목배산 장수바위 동쪽으로 500M 지점에 목씨네 묘가 3기가 있었는데 그중에 목정승의 묘가 있다고 붙은 이름이다. 이 무덤이 옛골 치소 책임자가 아닌 가 추정된다.
- 삼태기안: 저푸리 북쪽 산68-1과 380번지일대로 남향판의 골짜기. 주변이 삼태기처럼 생겼다고 붙은 이름.
- 안터: 옛날 노하동에 있던 421번지에 있던 집터로 기와나 사기그릇 조각이 출토되었다.
- 의골: 옛골 남쪽일대의 270-290번지 일대의 밭으로 고려시대의 관아가 있던 곳이라 한다. 고려 말엽에 목씨가 관장하던 관소라고 전한다.
- 장수바위: 옛골 서남쪽 산74-4번지 내에 있는 큰 바위로 장수의 발자국이 있다고 한다.
- 황후피난처: 명성황후가 왜인에게 쫓기어 황후의 올케 친정집인 이곳에 머물렀다가 용인 연일 정씨네로 갔다고 한다.
- 저푸리: 1번지-96번지 일대의 마을이다.
- 봉화터: 산49번지와 금토동 산35번지에 걸쳐 있는 천림산 봉수터이다. 경기도 기념물 제179호로 지정되어 있다.
- 옛골: 버스정류장이 있는 213번지 일대 삼거리에서 340번지 일대를 통칭.
- 신뱀이: 삼태기안의 골짜기로 새로운 눈을 만들어 눈뱀이가 만들어졌다는 뜻.

- 이수봉: 산73-2에 과천시와 의왕시의 경계지점에 있는 봉우리이다.
- 작은하늘봉: 매봉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이름이다.

7) 금토동

조선시대에는 금현동과 둔토리였는데 1914년 금토리가 되었다가 1973년에 금토동이 되었다. 금토동은 금현동에서 금(金)자를 따오고, 둔토리에서 토(土)자를 떼어다 만든 합성어인데 월천리(月川里), 월오천리(月午川里), 월아천리(月兒川里)로 불리었다는 기록이 안동 권씨 족보와 남원 윤씨 족보에 있다.

금이 많이 나와 돈을 물 쓰듯이 하여 돈이 퇴가 난다고 하여 돈퇴리로 불렸다는 이야기가 있다.

1914년 일제가 처음으로 만든 조선 측량지도에도 특별관리지역 표시가 있는 마을이다. 삼남에서 서울로 가는 길목으로 교통의 요충이다. 특히 천림산에는 목멱산에 봉화난 봉수를 전달하던 봉수(烽燧)터가 있다. 이 봉수터는 세종5년(1423년) 최초로 설치하고, 천천산 봉수로 다시 월천현 봉수로 불리다가 중종25년(1530년)에는 천천현 봉수로 불려졌고 영조5년(1729년)에 천림산 봉수로 개명되었다.

- 남산: 금토동 남쪽에 있는 산6-3일대. 이곳에 취락구조 마을이 새로 들어섰다.
- 청계산 : 과천, 의왕, 성남, 서울에 걸쳐 있는 산으로 옛날에는 청룡산으로 불리었다.
- 그늘고개: 내동과 외동을 왕래하던 산58-2-산59번지 일대의 작은 고개로 상여가 넘나들지 못하였다.
- 달네내 고개: 금토동에서 말죽거리로 통하는 산32-1과 산38-4일대의 고개인데, 옛날에는 천천현으로 불리다가 달네내 고개로 이름이 바뀌었다. 삼남에서 서울로 가는 길목이다. 문종 때에는 고개가



달네내 고개

파괴되어 태종대왕능 등 왕능에 피해가 간다고 하여 고개를 폐쇄하였다가 단종 2년에 재개통된 적이 있다.

- 쇠푸니 고개: 내동에서 운중동으로 왕래하던 산80번지와 산83번지 사이의 고개. 금토동에서 캐어낸 금을 실고 넘나들어서 금현이라고도 하였다.
- 병골: 호리병 처럼 입구는 좁고 안이 넓어서 생긴 이름인데 내동에서 서북쪽에 있는 산76번지에 있다.
- 두레이골: 내동에서 서쪽으로 가다가 동남향으로 있는 530-534번지 일대 골짜기. 둔촌 이집(李集)이 살았다는 설도 있다.
- 진등골: 내동에서 서쪽으로 가다 산73번지에서 남쪽으로 위치한 골짜기.
- 달네내: 청계산에서 발원하여 금토동으로 흐르는 산73번지에서 발원하여 흐르는 하천이다.
- 옥경동: 청계산 밑에 산76번지 일대의 경치가 아름다운 곳. 대원군

리 천주교 박해 때에 천주교 신자들이 모여 살던 터가 남아 있다.

- 효자문: 411번지 일대에 있던 효자문이 있었다고 전하여 온다.
- 정자벌: 옛날에 정자가 있었다는 들판인데, 권반이 지었다는 ‘무진정’이라는 정자가 있던 곳으로 추측되는 곳이다.
- 벌터: 벌판 가운데 집터가 있던 367번지-400번지 일대를 부르는 명칭이다.
- 메김이: 383-1번지 실개천에 메기가 많아서 생긴 이름.
- 도생이 고개: 산6-3번지 일대로 옛날 도선국사가 쉬어 갔다는 이야기가 있다.
- 바깥말: 202번지에서 305번지 일대의 마을의 통칭이다.
- 외동: 바깥말의 뜻을 가진 205번지-217번지 일대이다.
- 금현동: 달네내 고개 밑에 있는 64번지-72번지 일대의 마을
- 시락골: 2번지와 8번지에서 11번지까지의 골짜기이다.



봉화터

- 천립산: 산30-1과 산31번지,산32-1일대의 산으로 고속도로 동쪽의 산
- 봉화터: 산35번지와 상적동 산49-4일대에 있는 조선시대의 봉화터
- 남원윤씨 종종 묘역: 산44번지 일대로 윤극신의 묘 등 다수의 묘가 있다.
- 보조개골: 보조개처럼 속 들어 패인 골짜기라서 부쳐진 이름.
- 안동권씨 종종 묘역: 산57-1-57-4번지 일대로 권팔 이하 수기의 묘가 있다.
- 사당터: 473-1번지 내에 옛날 안동 권씨 사당과 재실이 있던 터이다.
- 능안: 안동 권씨 선대의 능침이 있어서 부르던 이름.
- 파랏골: 181-1번지일대의 골짜기 이름.
- 내랭이: 청계산 자락의 내룽이 끝나는 지점인 산58-1에서 산62번지 일대를 부르는 이름으로 내룽이를 변음으로 내랭이로 부른 것이다.
- 뒷말: 419번지 일대를 부르는 통칭이다.
- 아랫말: 453번지에서 489번지 일대를 부르는 마을이름.
- 갠밭: 623번지-635번지 일대의 벌판.
- 양촌: 620번지-7641-5일대의 명칭이다.
- 쇠푼이: 645번지-655번지까지 쇠푼이 고개 아래를 부르는 이름.
- 일흔두뱀이: 526-5번지에서528-7까지의 산 다량이 논이 있던 곳인데 논뱀이가 일흔 두개(72개)라고 생긴 이름이다.
- 남공철 묘역: 산64-9번지에 있는 남공철의 묘역이다.
- 남공철 고가터: 남공철이 살았다는 귀은당(歸恩堂)이라는 99칸 규모의 530번지에 집터인데 지금은 주춧돌만 남아 있다.
- 웃말: 535번지-567번지 일대의 마을이다.
- 윗갓: 남공철의 집 위에 집이 있던 534-13번지 일대이다.
- 병풍바위: 산79-1번지 내에 있던 병풍처럼 생긴 바위이다.
- 불당골: 663번지-671번지 일대에 골짜기로 옛날에 불당(절)이 있었다는 골짜기이다.
- 파평윤씨 종종 묘역: 산75번지 일대의 파평윤씨 종종 묘역이다.

- 강정일당 묘: 여류시인 정일당 강씨(1722-1832)의 묘이다. 산75번지에 있고, 성남시 향토유적 제1호로 지정되어 있다. 남편은 윤광현이다.
- 정일당 사당: 661번지 내에 있다.
- 도덕봉: 산64번지 최상단의 봉우리이다.
- 말등이: 산67-2번지로 산 모양이 말 잔등처럼 생겼다고 하는 산능선.
- 옥경동 암각문: 청계골입구 산76번지내 옥경동에 있는 암각문. 청계(淸溪)와 옥경산(玉磬山)이란 두 가지의 암각문이 있는데 옥경산이란 제명은 남공철이 남겼다고 전하고 있다.
- 모범정: 옛날에 모범정이라는 정자가 있었다.
- 선바위골: 558번지 위에 산76번지내에 있는 바위로 세워 놓은 것 같다. 일대를 선바위골 이라고 부른다.
- 병골: 549-1번지 위에 산76번지-산73번지 골짜기를 말한다.
- 청계골: 옥경동 위 544번지에서 산73번지 일대에 골짜기의 이름이다.
- 감나무터: 산76번지와 산73번지와 경계를 이루는 지점에 감나무가 많았고, 겨울이면 뿔나무꾼들이 여름에는 풀꾼들이 쉬어가던 쉼터이다. 6.25전까지 안동 권씨가 한 집 살았다.
- 긴 등골: 산76번지와 76-1번지와 산73번지 경계의 긴 골짜기이다.
- 루또비꼬불리와 신부 은둔굴: 대원군의 천주교박해 당시, 프랑스인 신부 루또비꼬 불리외가 숨어 살았다는 산73번지 있는 작은 토굴이다.
- 굴바위: 바위 밑으로 깊이를 알 수 없는 천연동굴이 있었다는 바위. 군부대에서 수용하기 전까지는 박쥐의 서식처였다.
- 갓모바위: 굴바위와 60m거리에 있는 바위로 갓모처럼 생겼다.
- 엄나무성골: 산73번지 내에 국사봉 밑에 있는 골짜기이다.
- 국사봉: 540m의 봉우리로 청계산 자락 중 남쪽에 위치한 봉우리인데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정신이 함유된 산 이름이다.
- 절고개: 이수봉과 국사봉 중간쯤에 의왕시 청계사로 넘어가는 고개 길이 있다.
- 작을가래성골: 이수봉 남쪽 산73번지에 가래나무가 많았다는 골짜기.

- 가래성골: 이수봉 동남쪽 골짜기로 가래나무가 많아서 생긴 이름.
- 청다래골: 이수봉 밑에 있는 험한 골짜기인데 다래 넝쿨이 많아서 지어진 이름.
- 호랑이장터: 이수봉과 도덕봉 사이에 능선인데 옛날에는 호랑이가 자주 나와서 놀던 곳이라고 한다.
- 이수봉: 상적동과 의왕시와 경계를 이루는 곳에 545m의 산봉우리인데, 연산군 때에 정여창(1450-1504년)이 무오사화(戊午土禍)를 예견하고 이 산에서 은거하여 두 번의 죽음을 피하였다고 하여 그의 후학인 정구(鄭逯)가 이수봉이라고 명명하였다고 한다.

8) 시흥동

조선시대에는 광주군 대왕면 시흥동이였다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때에 시흥리라고 하였다. 1973년 성남시로 승격되면서 시흥동이 되었다. 시흥동에는 옛날 지명으로 모랫말 이라는 지명은 옛날 숲내의 물길이 얼마나 변화무쌍하였는 지를 짐작하게 한다. 군량골(軍糧谷)이라는 지명은 군량미를 쌓아두는 창고가 있어서 붙은 이름이다.

- 도생이고개: 산50번지 일대에서 금토동 산6-3번지 일대의 작은 고개. 도선국사가 쉬어갔다는 전설의 고개이다.
- 유골: 산50번지 아래 골짜기 일대를 유골이라고 한다.
- 여흥민씨 종중묘역: 산50번지가 여흥민씨 선산이라서 지어진 이름.
- 군량골: 291-294번지일대의 골짜기인데 옛날에 군량미를 쌓아 두었던 곳
- 부처산골: 산54-5번지에 옛날부처가 있었대서 부처진 이름의 골짜기.
- 큰 고산골: 산54-1번지 일대의 지명인데 지금은 일해재단이 자리했다.
- 작은 고산골: 240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전나무: 산54-1번지에 큰 전나무가 잇었으나 지금은 없어졌다.



신흥동 군량골 전경

- 원수들: 261번지 일대의 들판을 통칭한다.
- 어리골: 물이 맑아서 얼굴이 물에 어린다는 물 맑은 골짜기이다.
- 참나무밑: 242-4번지에 아주 큰 참나무가 있었던 곳이다.
- 솔개골: 53-1번지에서 70번지 일대의 논이 있던 골짜기이다.
- 새터: 현재 동산마을이 있는 212번지에서 224번지 일대이다.
- 드림골: 65-1번지일대의 마을을 부르던 이름이다.
- 바깥우물: 58번지에 있던 우물인데 물맛이 아주 좋았었다.
- 응골: 가을이면 새들이 많아서 매가 새를 잡으러 많이 살던 곳
- 옛내개울: 금토동에서 내려온 물과 신흥동에서 흐르는 물이 합해진 곳에 연꽃을 심어 생긴 이름
- 옛내벌: 고등교 아래 110번지에서180번지 일대의 들판
- 활터: 옛날 활터가 있던 산15-2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담뒤고개: 사송동 샘골로 연결된 산7-3번지 일대의 고개이다.

9) 사송동

조선시대에는 광주군 대왕면 사촌리와 송현동이었는데 1914년 때에 사송리가 되었다가 1973년 성남시로 승격하자 사송동이 되었다. 고개 마루에 소나무가 많아서 송현동이었는데 시흥동 관할로 넘어갔다.

- 골안산: 들판 앞 산19번지와 산20번지 일대 야산의 골짜기이다.
- 들판골산: 들판과 솔고개에 걸쳐 있는 16-2번지와 산18번지의 산으로 정상에 들판이 있다.



배매산 전경

- 배매산: 1925년 을축년 홍수 때에 배를 매어둔 산이라고 하며, 샘골과 둔전동 사이 산1-1번지와 둔전동 1-4번지 내에 있다.
- 배밑들산: 벌말 동북쪽에 있는 산51번지와 산52번지내의 산인데 산모양이 배의 형국이라고 하며, 이산에 있는 배 밑들 고개는 배의

중심이라고 하여 우물을 파지 못 하게 하였다 한다.

- 한감산: 솔고개 서쪽에 산88-1번지인데 황씨네 종중묘역이다.
- 궁고개: 농막과 삼평동 봇들 사이에 있는 산64-1번지와 산64-2번지 일대의 농로이다.
- 담뒤고개: 샘골과 솔개고개 사이에 있는 산9번지와 산10번지 사이에 작은 고개.
- 당너머고개: 들판골과 솔고개 아랫마을 사이의 517-4번지 546-1 번지 일대 작은 고개.
- 배밑 들고개: 별말과 동간 사이에 산49-1에서 산 55번지 일대에 있는 농로 고개.
- 샘골고개: 솔고개 웃말과 샘골 사이를 왕래하는 길인데 산14번지와 산15번지 사이고개, 정상에는 서낭당(성황당)이 있었다.
- 잣마당고개: 일명 덩 뒤 고개인데 626번지와 641번지 사이, 샘골과 집너머 사이에 있다.
- 콩배나무 고개: 동간과 모랫말 사이의 산60-1번지 일대의 고개로 고개 일대에 콩(팻)배나무가 많이 있었다.
- 가재논골: 부황대뿌리 밑에 있는 595번지 일대 골짜기로 샘물 나오는 곳이 많이 있고 샘물에는 가재가 많았다.
- 구레골: 궁고개와 안골 사이의 산골짜기.
- 구레골길: 구레골로 가는 골짜기 농로 길.
- 뱀골: 별말 뒤 서편에 있는 산49-1번지 산 아래 골짜기인데 뱀처럼 꼬불꼬불하여 부처진 이름.
- 부처산골: 들판골 내령 산27번지 일대로 집너머 남쪽에 있는 골짜기인데 옛날에 부처가 있었다고 한다.
- 안골: 모랫말 서쪽 450번지에서 470번지일대 농경지였는데 정수장이 설치되었다.
- 삼거리개울: 운중동과 금토동에서 발원한 물이 삼평동을 지나 중보를 거쳐서 631-1일대 탄천교에서 숲내와 합류하는 개천
- 아랫말우물: 아래마을 중앙에 552번지에 있는 마을 식수

- 옷우물: 부황 대 뿌리 중턱에 있는 옹달샘으로 옷오른 것을 치유하는 효과가 있다.
- 용해우물: 별말 마을회관 동쪽 10여M 지점 산56-1에 있는 우물인데 용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양도 많고 물맛이 좋다고 생긴 이름이다.
- 옷우물: 샘갈 위 675번지 내에 있는데 약수라고 소문이 나 있다.
- 중보(湫):숫내 서쪽 경부고속도로 진입로 밑에 있는 삼거리 개울에 있는 보.
- 중터말우물: 솔고개 옷말과 아랫말 사이 552번지인 마을 중심에 있어서 부쳐진 이름의 우물이다.
- 해남물: 담귀고개 663-1번지에 있던 우물로 바위 속에서 샘물이 나오며 우물가에는 해 나무가 있다.
- 향나무우물: 솔고개 옷말517-1번지에 있는 대동우물로 향나무가 있어서 향나무 우물이라고 하였다.
- 건개들: 별말 남쪽으로 큰비가 와야만 모를 심을 수 있는 110번지에서 170번지일대의 건담 논들이 있던 들판이다.
- 낚은터: 농말과 동간 사이의 길가 구석진 곳123번지에 오래된 집이 있어서 생긴 이름.
- 덕마대밭: 244번지에서 290번지일대 숫내와 동간 사이의 농경지로 일부는 분당 신도시에 편입 되었다.
- 동아다리: 시흥동과 여수동 경계를 이루는 다리로 다리 아래에는 안장 바위(건들바위)가 있고 숫내가 흐른다. 동아건설이 시공하여 만든 다리라서 동아다리라고 부른다.
- 듬바위: 듬(두엄)더미처럼 큰 바위로 산14번지와 산15-1번지 정상에 있다. 구전에 의하면 한 장수가 분당동 성덕산(일명 맹산)에 있는 바위를 들고 가다 내려놓은 바위라고 하는데 바위에 장수발자국이 있었다고 한다.
- 부황대뿌리: 동간 동쪽 산37번지와 산38번지 일대의 산인데 이곳이 부엉이의 서식처였으므로 부쳐진 이름이다.

- 산신타: 산13번지와 산90번지의 중간으로 별말과 모랫말 주민들이 마을의 안녕과 부귀를 위하여 음력9월에 정성을 다하여 산신타를 지내던 곳이다.
- 세수리별: 들판과 숲내 사이에 있는 275번지에서 280번지 일대 들 판으로 버드나무가 많았다고 한다.
- 수레나드리들: 별말과 숲내 사이에 있는 43번지에서 140번지 일대의 들판으로 옛날 보를 막을 때 수레로 돌을 운반하였다고 한다.
- 안장바위: 동아다리 밑에 있는 바위인데 건들 바위라고도 한다. 숲내에는 서울에서 한량들이 천렵을 많이 나왔는데 고기를 많이 잡아 매운탕을 끓여 먹고는 취중에 바위위에 걸터 앉아서 안장 갖춘 말을 탄듯이 건들거리며 즐기고 있다고 하여 생긴 이름이다.
- 용마바위: 부처산골 아래 산27번지 내에 있다. 바위에 용마의 발자국이 있어서 부쳐진 이름이다.



별말 전경

- 벌말: 163번지에서 183번지 일대의 벌판에 있는 마을이라서 벌말이라고 부른다.
- 물방아: 150-1번지와 150-2번지에 물레방아가 있었다.
- 농막: 332번지와 380번지 일대의 옛날 농막이 있었다는 마을이다.
- 술고개: 산14번지를 끼고 돌아 넘는 고개를 말한다.
- 진사리길: 546-1호2호 옆으로 구부러지게 돌아가는 농로 길.
- 여우굴: 산16-2번지 내에 옛날에 여우가 살던 굴이 있었다.
- 동안: 624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잣마당: 645-2번지 일대의 마당처럼 넓은 터가 있었던 곳.
- 동간: 300번지 일대를 부르는 이름이다.

<한 동역>